



# 송송이와 나

## ★ 핵심 주제

- 가족
- 친구
- 관계
- 애착
- 감정

## ★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3-4학년군
성취 기준	<p>[4국05-01] 인물과 이야기의 흐름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p> <p>[4국05-02]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한다.</p> <p>[4국06-01] 인터넷에서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목적에 맞게 자료를 선택한다.</p> <p>[4도02-01] 효, 우애의 의미와 필요성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여 실천 계획을 세운다.</p> <p>[4도02-02] 친구 사이의 배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배려에 기반한 도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p> <p>[4사03-01] 최근 사회 변화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나타난 생활 모습의 변화를 탐색한다.</p>
	5-6학년군
성취 기준	<p>[6국01-07]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p> <p>[6국02-02] 글에서 생략된 내용이나 함축된 표현을 문맥을 고려하여 추론한다.</p> <p>[6국02-04]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p> <p>[6국03-03]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을 나타내는 글을 쓴다.</p> <p>[6국05-01]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는다.</p> <p>[6국05-02] 비유적 표현의 효과에 유의하여 작품을 감상한다.</p> <p>[6국05-03] 소설이나 극을 읽고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한다.</p> <p>[6국06-01] 정보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는 매체 자료를 찾는다.</p> <p>[6도01-03]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때 도덕적 고려의 필요성을 알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탐색하여 진로 계획을 수립한다.</p> <p>[6도03-04]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며 인류애를 기른다.</p>

## ★ 온 책 읽기 활동

🌱 읽기 전	🌿 읽기 중		🍊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활동 주제
• 이야기 상상하기	송송이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병원</li> <li>• 더 좋은 관계를 위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li> <li>• 선택 활동</li> </ul>
	한여름의 냉장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여름의 냉장고</li> <li>• 여름이네</li> </ul>	
	짜릿한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 빙고</li> <li>• 신호등 토론</li> </ul>	

★ 차례를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예상해 봅시다.

1  
+  
송송이와 나



◆ 친구는 어떤  
느낌일까요?

◆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2  
+  
한여름의 냉장고



◆ 친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3  
+  
짜릿한 카메라



◆ 친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읽기 중 활동	송송이와 나	학년 반 번	
	새로운 병원	이름	

★ 여기는 어디인지 생각해 봅시다.



◆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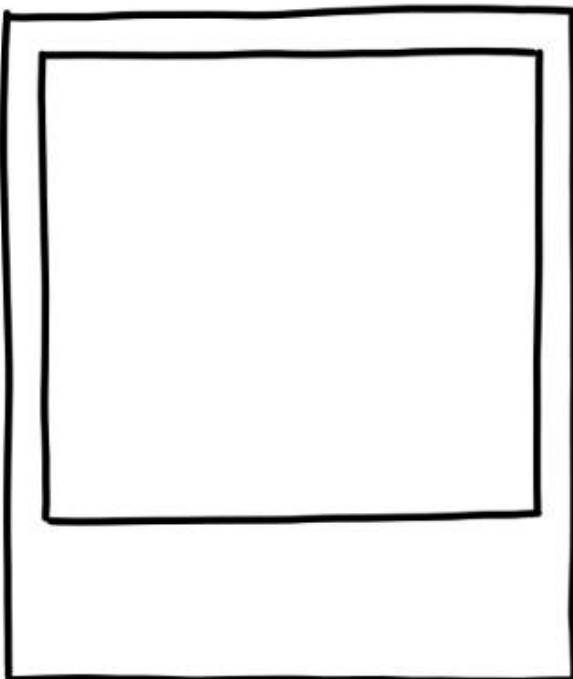
◆ 이런 곳이 있었다면 난 무엇을 치료했을까요?

---



---

★ 주인공과 같이 인형이나 장난감에 대한 나만의 이야기를 소개해 봅시다.




---



---



---



---




---



---



---

 읽기 중 활동	송송이와 나	학년 반 번
	더 좋은 관계를 위하여	이름

★ ‘나’에게 있었던 일과 ‘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있었던 일	나(도진원)의 마음
송송이와 나	12년 전 ‘나’가 아기 때 엄마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를 안겨 주니 잠을 잘 잤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송송이가 없으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	
태운이와 나	태운이가 ‘나’의 집에서 ‘나’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이나 다름없는 송송이의 팔을 잡아당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의 팔이 떨어졌다. 태운이는 ‘나’와 다투다가 그냥 가 버렸다.	
시연이와 나	피구를 하던 중 시연이가 손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을 감추려고 손에 매달고 다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인형이 떨어졌다. 시연이의 화상을 보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30px; height: 20px;"></div> 고 하였고, 그날 이후로 시연이는 ‘나’와 말을 하지 않았다.	



42쪽

“맞아, 나, 용기가 생겼어. 이제 가자.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태운이에게 송송이 이야기를 해 줘야겠어. 오늘 너한테  
한 것처럼 더 늦기 전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 ‘나’가 태운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



---



---



읽기 중 활동

한여름의 냉장고

학년 반 번

## 한여름의 냉장고

이름

★ 음식을 자꾸 먹으려는 여름이의 행동을 살펴봅시다.

52쪽

친구들과 헤어질 때 더 많은 눈물과 떡볶이가 필요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슬픔엔 매운 가 최고다.

61쪽

내가 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의 주름진 입가가 씹  
룩 하고 움직였다. 매일 잔소리를 하지만 할머니도 내가 좋은 걸까?

63쪽

사실 할머니와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다. 그러니까 안 맞을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날 낳았으니 피가 많이 섞였을 엄마도 잘  
맞지 않긴 마찬가지다. 나랑 맞는 건, 역시 맛있는 뿐이다.

64쪽

그러다 한 번씩 쓸쓸함이 몰려오는 날이면 오늘처럼 을 탈  
탈 털어 오고 할머니에게 혼나는 일이 반복되곤 한다.


◆ 여름이가 음식을 자꾸 먹으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여름이가 할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할머니 음식을 모르는 척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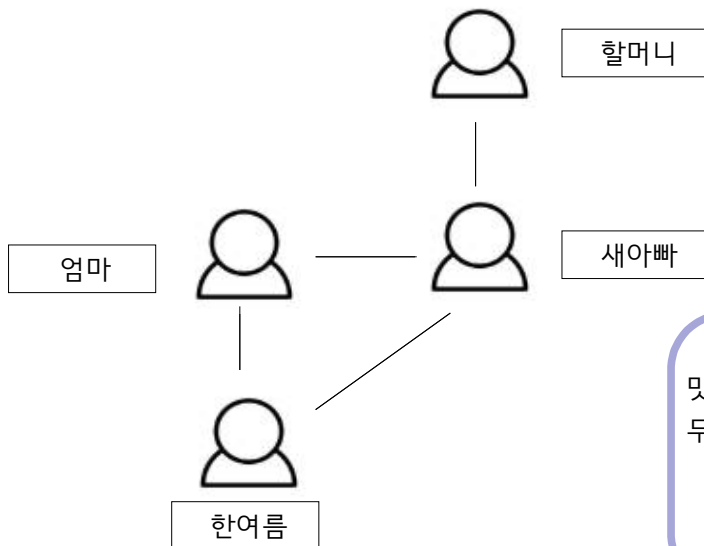
★ 여름이의 조합처럼 '나만의 음식 조합'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55쪽

열불볶음면과 치즈볶음면은 따로 익힌 후 한 그릇에 담아 쓱쓱 비비면 최  
고로 조합로운 맛을 낸다. 한입 가득 매콤함과 짹짹함, 달콤함이 밀려왔다.

 <b>읽기 중 활동</b>	한여름의 냉장고	학년 반 번	
	<b>여름이네</b>	이름	

★ 새로운 가족이 된 할머니와 여름이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 할머니가 집 앞에 ‘여름이네’ 문패를 붙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 여름이가 많이 먹는 것을 잔소리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할머니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 새 냉장고 문을 열고 찬바람을 함께 쐬는 여름이와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를 검색해서 정리해 봅시다.

💡 현대 사회의 가족은 더 이상 ‘혈연, 혼인’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개인의 선택과 삶의 다양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의 본질도 사랑, 신뢰, 상호 지원으로 재정의되고 있어요.

◆	
◆	
◆	

 <b>읽기 중 활동</b>	짜릿한 카메라	학년   반   번	
	<b>감정 빙고</b>	이름	

★ 다음 감정을 나타내는 말로 감정 빙고 놀이를 해 봅시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슬프다	화나다	서운하다
억울하다	당황스럽다	부끄럽다	무섭다	고맙다	미안하다
속상하다	심심하다	불안하다	자랑스럽다	놀라다	지루하다
실망하다					


★ 다음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의 감정을 써 봅시다.

<하진이의 '깜짝 카메라' 대상이 되어 놀라서 넘어진 친구들>

▶하진의 감정:

▶친구들의 감정:

<하진이의 '실험 카메라' 대상이 되어 놀라는 사람들>

▶하진이의 감정:

▶사람들의 감정:

<자살하려는 줄 알고 하진이를 말리는 현준이>


▶하진의 감정:

▶현준의 감정:

<한건우에게 괴롭힘을 당한 일을 하진에게 말하는 현준이>

▶현준의 감정:

▶하진의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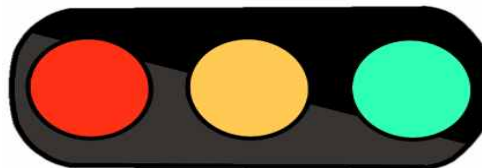
 <b>읽기 중 활동</b>	짜릿한 카메라	학년 반 번	
	<b>신호등 토론</b>	이름	

★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 봅시다.

토론 주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허용된다.

- 준비물: 표시판 또는 색종이 3개(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 자료 수집: 사생활 침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 신호등 토론 방법



반대                  중립                  찬성

1. 찬성하는 사람은 초록색 표시판을 들고 반대하는 사람은 빨간색 표시판을, 찬성과 반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노란색 표시판을 듭니다.

찬성 근거는...

반대 근거는...

2. 정해진 시간(5분~10분) 동안 빨간색 표시판과 초록색 표시판을 든 친구들은 노란색 표시판을 든 친구들을 찾아가 찬성 혹은 반대의 근거를 말하며 설득합니다.



반대                  중립                  찬성

3.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표시판을 들 기회를 갖습니다. 이때, 노란색 표시판을 든 친구는 빨간색 표시판과 초록색 표시판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빨간색 표시판과 초록색 표시판을 든 친구도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다시 2번의 단계를 거치고 최종 표시판을 듭니다.

★ 디지털 에티켓(디지털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디지털 에티켓은 영어로는 Digital Etiquette 또는 Netiquette(네트워크 etiquette + net의 합성어)라고 하며,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 시 지켜야 할 예절을 의미합니다.





 읽기 후 활동

## 등장 인물에게 편지 쓰기

학년 반 번

이름

★ 등장인물 중 한 명을 골라 편지를 써 보시다.



송송이와 나  
도진원

## 한여름의 냉장고

짜릿한 카메라  
김하진

[illegible]

 읽기 후 활동	<h2 style="text-align: center;">선택 활동</h2>		학년   반   번	
			이름	

★ 세 가지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동해 봅시다.

### 선택1 새로운 병원 만들기

병원 이름	
하는 일	
만든 까닭	

### 선택2 우리 집 문패 만들기

### 선택3 학교 폭력 예방 SNS 챌린지

💡 학교 폭력 예방 SNS 챌린지 방법 💡

- ▶ 친구들과 3~4명 그룹을 만듭니다.
- ▶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표어를 만들고 B4 도화지에 크게 쓰고 꾸밈니다.
- ▶ 꾸민 도화지를 들고 인증사진을 찍고,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 ▶ SNS를 본 친구들이 뒤를 이어 챌린지에 도전합니다.

# <예시 답안>

읽기 중 활동	송송이와 나	학년 반 번
	새로운 병원	이름

★ 여기는 어디인지 생각해 봅시다.



◆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인형을 고쳐주는 병원

읽기 중 활동	한여름의 냉장고	학년 반 번
	한여름의 냉장고	이름

★ 음식을 자꾸 먹으려는 여름이의 행동을 살펴봅시다.

52쪽 친구들과 헤어질 때 더 많은 눈물과 먹북이가 필요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슬픔엔 매운 **떡** **북** **이**가 최고다.

61쪽 내가 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할** **머** **니**의 주름진 입가가 씩룩 하고 움직였다. 매일 잔소리를 하지만 할머니도 내가 좋은 걸까?

63쪽 사실 할머니와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다. 그러니까 안 맛을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날 낳았으니 피가 많이 섞였을 엄마도 잘 맞지 않긴 마찬가지다. 나랑 맞는 건, 역시 맛있는 **음** **식**뿐이다.

64쪽 그러다 한 번씩 쓸쓸함이 물려오는 날이면 오늘처럼 **편** **의** **정**을 탈탈 털어 오고 할머니에게 흔하는 일이 반복되곤 한다.

◆ 여름이가 음식을 자꾸 먹으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슬프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 여름이가 할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할머니 음식을 모르는 척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할머니의 음식에서 정성과 사랑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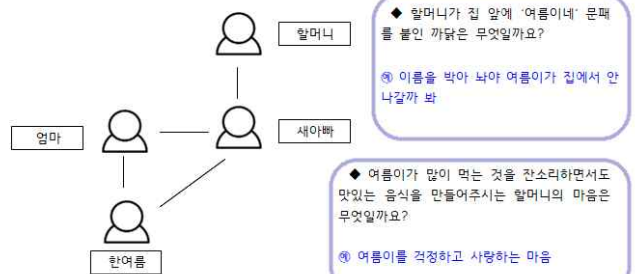
읽기 중 활동	송송이와 나	학년 반 번
	더 좋은 관계를 위하여	이름

★ '나'에게 있었던 일과 '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있었던 일	나(도진원)의 마음
송송이와 나	12년 전 '나'가 아기 때 엄마가 <b>송</b> <b>송</b> <b>이</b> 를 안겨주니 잠을 잘 잤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송송이가 없으면 <b>엄</b> <b>마</b>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	
태운이와 나	태운이가 '나'의 집에서 '나'의 <b>동</b> <b>생</b> 이나 다름없는 송송이의 팔을 잡아당겨 <b>송</b> <b>송</b> <b>이</b> 의 팔이 떨어졌다. 태운이는 '나'와 다투다가 그냥 가버렸다.	
시연이와 나	피구를 하던 중 시연이가 손의 <b>화</b> <b>상</b> 을 감추려고 손에 매달고 다닌 <b>햄</b> <b>스</b> <b>터</b> 인형이 떨어졌다. 시연이의 화상을 보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b>칭</b> <b>그</b> <b>럽</b> <b>다</b> 고 하였고, 그날 이후로 시연이는 '나'와 말을 하지 않았다.	

읽기 중 활동	한여름의 냉장고	학년 반 번
	여름이네	이름

★ 새로운 가족이 된 할머니와 여름이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 새 냉장고 문을 열고 한 바람을 함께 쐬는 여름이와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면서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을 것이다.